

조달청, 민간전문가와 함께 ‘화재대비 설계기준’ 최종 확정 추진

조달청소식

2025/08/29 10:50

<http://blog.naver.com/kangsan2023/223983649316>

공공건축물 화재, 설계단계부터 막는다.

- 민간 전문가와 워크숍 개최, 화재대비 설계검토 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기술사회 및 소방분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대비 공공건축물 설계기준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민간아파트, 공장 등 대형화재 발생에 따라 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조달청이 마련한 화재예방을 위한 설계기준안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화재위험도가 높은 구역에 대한 화재 초기감지시스템 적용, △소방펌프실 내 공간활용도와 유지관리성을 높인 일체형 소방펌프 적용, △시공 안전을 위한 용접 없는 배관이음 적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달청은 작년부터 화재에 대비한 공공건축물 설계강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27명과 함께 5,701건의 설계검토 사례를 분석하여 227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와 연계한 설계기준안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마련했다.

조달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달 ‘화재 대비 공공건축물 설계기준’을 최종 확정된 후, 조달청 설계검토 자문위원 및 설계사에 배포하고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200억원 이상 대형 공공시설사업 및 30억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연간 13조원 규모의 설계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에 발맞춰, 공공시설 분야에서 안전 관련 각종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설계예산검토과 장종삼 사무관(042-724-7391)



조달청 이(가) 창작한 공공건축물 화재, 설계단계부터 막는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